

일본 도서관 연수를 다녀와서

한 정 원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1. 여행을 떠나며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특히 도서관 운영을 잘 한다는데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곳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 사진이나 자료를 보면서 실제로 다녀온 사람들의 체험담을 들어보았지만 '응, 그런가보다' 하는 정도로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어 안타깝게 여기던 중 필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199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방문단의 일행으로 신인용 열람봉사과 과장, 이치주 정보화담당관실 사서사무관과 함께 일본의 도서관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1999년 5월 24일~31일,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연수여행을 떠나면서 첫 외국여행이라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가슴이 떨렸다. 출발하던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려 비행기 안에서 내다본 하늘은 구름밖에 보이지 않았다. 2시간 정도 날아 나리타공항에 도착하니 국립국회도서관 직원 2명과 유학중인 국립중앙도서관 직원 1명이 우리 방문단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아! 드디어 내가 일본 땅을 밟았구나' 하는 느낌과 함께 풍경이나 사람들이 우리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편안함을 느꼈다.

2.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1997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제의에 따라 실시하게 된 한·일 국립도서관 업무교류는 매년 양

국이 번갈아 가며 상대국의 연수방문단을 초청하여 기초보고와 주제발표 세미나, 도서관 견학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제1회에는 <납본제도, MARC 시스템, 이용자서비스제도>를, 제2회에는 <도서관협력, 자료보존, 전자도서관>에 관한 주제로 업무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주제는 <도서관과 저작권>으로 정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처리동향에 관하여 주로 토론하였다.

기초보고에서 우리측은 신인용 과장이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와 역할]을, 일본측에서는 쓰찌야 노리요시(土屋紀義) 총무부 부부장이 [21세기를 향한 국립국회도서관 : 3관체제에의 대응]을 발표하였으며, 주제발표로는 이치주 사서사무관이 [전자도서관과 저작권]을, 미나미 료이치(南亮一) 총무과 문서계장이 [일본에 있어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처리의 동향에 대하여-특히 전자도서관서비스에의 대응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3. 국립국회도서관의 동향

국립국회도서관은 21세기를 앞두고 크게 변모를 꾀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 건립, 국제어린이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두 도서관이 전면개관 되고 나면 현재 국립국회도서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어떻게 기능분담해서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서관은 1997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1998년 11월 건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 현재 상세 설계를 마치고 2002년 개관 예정으로 준비중인데, 전자도서관, 문헌제공, 도서관협력에 중점을 두고 특히 아시아자료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지부우에노도서관 시설을 새로 고쳐 사용하게 되며 2000년 5월 제 1기 개관, 2002년 제2기 전면개관을 앞두고 공사를 진행중이다.

3관체제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시스템 계획과 더불어 관외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기관이나 경영개혁검토위원회가 연구검토를 진행중이다.

우리 나라 국립중앙도서관도 보존서고등을 건립 중이며, 제2국립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었으나, 일본이 학위논문 서비스를 담당하던 지부우에노도서관을 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고 있는데 반하여, 당시 우리 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분관을 학위논문 전용관으로 만들기 위하여 준비중이던 것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

한편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실시를 위하여 특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도 들을 수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캠페인 사례 등은 우리 나라 도서관의 경우에도 적용해 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4. 도서관 견학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본관 2층 일반출입구를 비롯하여 목록시스템과 서고 컨베이어벨트시스템, 아시아자료실, 자료보존 및 수리제본시설, 연속간행물의 입수에서 이용까지 처리 과정, 미

국정부간행물 마이크로피시 처리 및 이용방법 등을 직접 방문하여 견학하였으며, 당시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전자도서관 시연과 국제어린이도서관시스템 시연을 참관하였다.

이 밖에도 지부동양문고, 와세다대학 종합학술정보센터,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 등을 둘러보았다.

지부동양문고는 미쓰비시재벌 3대인 아와사끼 히사야가 설립한 기관으로 1948년부터 국회도서관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중국·일본도서 46만책(한국도서 7,000종 30,000책), 북미언어·아라비아·페르시아자료 33만5천책 등 86만책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티벳자료, 중국지방사보, 아시아연구잡지, 전세계의 돈황문고를 수집하고 있다. 직원은 이사를장을 포함한 24명(국립국회도서관직원 8명, 나머지는 동양문고직원임)과 비상근직원을 포함하여 50명이고, 연구원이 100명 정도 있다.

와세다대학 종합학술정보센터는 대학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지상 4층, 지하 3층 규모의 아담하고 깔끔한 시설로 31개 분관을 두고 있으며, 장서는 본관 2백만책을 포함하여 430만책을 소장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도비스 일본어판 와인(WINE; Waseda university Information NEtwork)시스템 시대의 막을 내리고 미국의 이노팩(INNOPAC) 시스템 일본어판을 만들어 클라이언트 서버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사카시립중앙도서관은 우선 들어가는 입구부터 인상적이었다. 큰길가에 바로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 지하 1층은 지하철의 출구와 연결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점이 두드러져 보였다. 마침 우리 방문단이 찾아간 날이 휴

관일이라 이용자의 이용 광경은 볼 수 없었으나 시설 등의 사진촬영이 가능하였고, 자료실 사서들이 모여 앉아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열어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동 수서, 정리 등 중앙관과 분관의 연계운영 체제와 장애인서비스 시설이 돋보였다.

5. 일본과 일본 사람들

연수기간 동안 주로 국립국회도서관에 머무르며 바쁜 일정에 따라 움직임이라 다양하게 일본을 체험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공항이나 음식점, 거리에서 느낀 일본은 한마디로 깨끗하고 친절 한 나라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국립국회도서관 사람들과 알게된 인연은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에서 수행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서 맞아주고 사소한 일정까지도 의견을 물어 진행하는 배려를 보였으며,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알려주는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한편 일본 사람들은 결코 상냥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날카로운 면을 지녔다고 느꼈다. 국립국회도서관 아시아자료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나라 이용자들의 아시아지역 정보 이용 태도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한국내에서 검색해 보았나 하는 것과 조사를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요청하면서 즉시 알려줄 것을 무리하게 부탁하는 면을 꼬집을 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결코 함께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자 부끄러워졌다. 비슷한 경우이지만 전자도서관 추진사업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짧은 시일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한국의 추진력이 부럽다고 하는 이야기가 칭찬으로만 들리지는 않았다. 물론 어느 쪽이나 장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 면밀한 계획을 세워 끊임없는 논의를 통하여 실행시켜 나가는 일본을 보면서 지나치면 병이 될 수도 있으나 그래도 그들의 치밀함과 준비성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6. 글을 마치며

백문이 불여일견!

아주 정확하게 잘 맞는 말이다. 아무리 들어도 남의 이야기이던 것이 직접 보고 나니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동과 함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과 새로운 의욕이 꼭 차올랐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 나라 도서관도 이 시점에서 현재를 돌아보고 새로운 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지식정보에 대한 주권을 잃은 새로운 의미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거의 모든 도서관이 너도나도 구축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그 내용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서로 역할을 나누어 맡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우리 나라 도서관이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도서관 인들에게 있다. 이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내용성 있는 지도력과 도서관인 각자 각자의 자기혁신 노력, 그리고 도서관인 모두 서로 협력하는 미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